

北漢山 지역의 寺刹刊行 佛書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Buddhist Literature Published at
Temples around Bukhansan Mountain

김 성 수 (Kim, Sung-Soo)*

최 정 이 (Choi, Jung-E)**

남 권 희 (Nam, Kwon-Hee)***

◁ 목 차 ▷

- | | |
|--------------------|----------------------|
| 1. 서 론 | 3.2 주요 전존본 |
| 2. 북한산 지역에서 판각된 책판 | 4. 「北漢冊目錄」과 행공의 서적보관 |
| 3. 북한산 지역의 불서 간행 | 5. 결 론 |
| 3.1 서적의 간행의 기록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논문은 북한산 지역의 사찰에서 18세기 이후에 간행된 佛書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누관고」를 비롯한 각종 책판목록과 「조선왕조실록」을 위시한 각종 기록(史料)들을 검색하여 정리함으로써, 북한산 지역에서의 불서 간행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산 지역의 전체 판본은 모두 25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금속활자본은 4종, 목활자본은 2종, 목판본은 19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금속활자본 4종은 모두 尙史字로 인출된 것이며, 모두 佛典類에 해당하였다.

2) 간행 시기별 사항은 ‘18세기 5종(20%), 19세기 15종(60%), 20세기 5종(20%)’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851년과 1882년경에 두 차례의 대규모 開板 佛事가 있었음을 주목하였다.

3) 불전류 간행의 특징은 ① 王室이나 그 외척(外戚: 外家)의 후원을 받아서, 이른바 ‘왕실의 안녕을 위한 발원(發願)의 간행’이 많았음을 주목하였다. ② 1872년에 결성된 妙蓮社(북한산 甘露庵에서 발족된 관음신앙 기반의 結社)에서 간행된 一連의 불서들은 결사의 실천과 관련한 측면에서 주목되었다.

4) 18세기 이후 북한산 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서적 및 판본들은 일단 간행된 이후 해당 사찰의 승려들과 신도에 의하여 여타 지역의 다른 사찰이나 소장처로 分給되었던 경향을 파악하였다.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asukl@nate.com)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접수일: 2014년 5월 28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6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5) 북한산 行宮은 ‘왕실의 옥책과 옥보, 왕실의 중요 서적을 보존하는 일종의 서고’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要語: 북한산, 사찰, 佛書, 북한산 行宮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Buddhist literature published at temples around Bukhansan Mountain since the 18th century. Various lists of woodblocks, including 『Nupango』 and a variety of historical documents, including 『Joseon Wangjo Sillok』, were examined and organized to analyze the trend of publishing Buddhist literatures in the area of Bukhansan Mountain. Major findings of this examination are as follows:

1) A total of 25 editions were investigated to be produced around Bukhansan Mountain. Among them, four editions and two editions were published with metal movable types and wooden movable types, respectively, and 19 were woodblock editions. Especially four editions with metal movable types were printed with Jeonsaja fonts, and all belonged to the subject class of Buddhist scriptures.

2) According to the period of publication, four editions (20%) were published in the 18th century, fifteen (60%) and five (20%) were published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respectively. It was observed that two Buddhistic events on a large scale were held to begin the publication in 1851 and around 1882.

3)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Buddhist literatures showed ① there were many publications to pray for the safety and prosperity of royal families, especially, sponsored by Joseon's royal family or their maternal relatives, and ② a series of buddhist literatures published at 'Myoryeon Geolsa', organized in 1872,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practices of its organization.

4) It was confirmed that the books and editions published at temples around Bukhansan Mountain since the 18th century had been distributed to several temples or locations in other areas by Buddhist monks and their followers.

5) It was noted that a temporary palace at Bukhansan Mountain had a function of storing the royal books and registries and some important publications of royal families.

Key words: Bukhansan Mountain(北漢山), Buddhist temples,
Buddhist literature(佛書), Publication

1. 서론

서울의 북쪽에 위치한 ‘북한산(北漢山)’¹⁾은 과거 ‘負兒嶽·華山·三角山’ 등으로 일컬어져 왔다.²⁾ 이러한 북한산은 삼국시대부터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山祭를 준행하는 장소로서 神聖視되었으며, 山勢의 특성상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였다.

북한산에는 일찍부터 서적의 출판에 위한 여러 요건들이 갖추어졌다. 즉, 북한산 내에 고려 말기의 원증국사 太古普愚가 重修한 <重興寺>를 비롯하여 정의공주(貞懿公主: 1415-1477)의 願刹인 <道成庵>과 <津寬寺> 등 많은 사찰과 암자들이 형성되었다.³⁾ 이들 사찰에서는 왕명으로 經書와 韻書 등을 간행하였으며, 때로는 자체적으로 布敎用 佛書를 판각·인출하였다. 또한 북한산에는 行宮을 두어 외세의 침략을 대비해 중요한 실록의 寫本과 의궤, 역대 왕들의 옥쇄 등 왕실의 족보와 중요문서들을 安置하는 왕실서고의 기능도 겸비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산 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와 행궁의 서적 보관’에 대하여 현존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고, 진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산 지역 佛書의 간행 추이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각종 史料 및 책관목록에서 북한산의 인쇄문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파악하고, 傳存本을 바탕으로 각 서적의 체제 및 내용을 분석하며, 그 간행과 편찬에 관련된 기록들을 종합하여 북한산 지역의 불서 간행의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⁴⁾

-
- 1) 서울특별시의 도봉구·성북구·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 2)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山岳을 神聖한 것으로 여겨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숭배하였으며, 북한산 역시 그 숭배의 대상 중 하나였다. 『삼국사기』 <祭祀誌>에 ‘부아악(지금의 북한산)은 신라시대의 名山大川으로 기록되었으며, ‘小祠’의 대상으로 숭배되어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백제시대인 ‘132년(개루왕 5)에 百濟는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북한산 내에 산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新羅의 진흥왕(540-576)은 북한산에 직접 올라 國界를 정비한 뒤 碑峯에 巡狩碑를 세웠다. 고려시대에는 현종이, 1010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인하여, 태조 왕건의 齋宮을 북한산 <香林寺>에 옮겨 안치한 바 있다(『고려사』 권4, 세가 현종 7년 1월조). 조선시대에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다수의 文集과 歷史書 등에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 3) 『신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條.

2. 북한산 지역에서 판각된 책판

현존하는 각종 책판목록과 「북한지」 등은 북한산 지역의 출판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 준다.⁵⁾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종 책판목록과 「북한지」를 바탕으로 북한산 지역에서 판각된 책판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⁶⁾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산 지역에서 판각된 책판은 모두 33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總經類를 비롯해 小學類·通史類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책판 가운데 「喪禮備要」·「剪燈新話」·「千字文」 등은 <태고사>에서 판각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⁷⁾

-
- 4) 본 연구에서 '북한산의 범위'는 북한산성과 그 주변지역 및 三角山을 포함하였으며, 검색 대상으로는 '北漢(北漢山城)', 북한산 내에 소재하는 '사찰명' 및 '행궁' 그리고 북한산의 異名인 '負兒巖', '삼각산' 등으로 하였다. 한편, 북한산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북한산을 중심으로 한 출판활동과 간행서적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즉 백혜경은 '경기도 양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에서 간행된 99종의 불서를 소개한 바 있으며, 언급된 사찰 가운데 북한산에 소재한 <內院庵>·<道誥寺>·<重興寺> 등이 포함되어, 사찰의 연혁과 관련 사실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백혜경, "楊洲地域 佛書 刊行에 관한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집(2006), 245-266). 안현주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사서」 가운데 북한산 판본 2종을 소개한 바 있다(안현주, "조선시대 「사서」의 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07)). 尹炳泰 교수에 의하여 북한산에서 간행된 서적의 일부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 5) 실제로 각 지역에 소장된 판목에 대한 조사는 상당수 누락된 부분이 많으며, 지역 서로 간의 책판 대차와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져 수록된 책판명이 해당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 6)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산 지역에서 판각된 책판과 관련한 자료로 책판목록이 4종, 지리서 1종 모두 5종이 확인되었다. 먼저 책판 목록에서 '北漢'을 검색한 결과 1778년에 편찬된 「각도책판목록」과 1840년에 편찬된 「각도책판목록」에서 각각 15종, 26종이 확인되었다. 이어 1796년(정조 20)에 편찬된 「누관고」에는 北漢 <太古寺>에서 소장한 책판이 24종이 나타났으며 1835년경에 편찬된 「林園十六志」, 「京外鏤板」은 9종의 책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고사에 소장된 책판과 관련하여 「태고사와 태고 보우국사」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수록된 책명에는 간혹 略書名이나 別書名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중 동일판으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중복된 것을 포함하면 <표 1>과 같다.
 - 7) 性能, 「寺刹」, 「北漢誌」, "... 仍名以太古 又自備物力 刻四書三經 具諺解 小微通鑑 十九史略 唐詩品彙 古文百選 喪禮備要 剪燈新話 三韻通考 千字文 朱子筆 共五千七百板..."

北漢山 지역의 寺刹刊行 佛書에 관한 연구

<표 1> 기록에 나타난 북한산 지역의 책판

연번	책판명	책판목록				북한지 (1745년)
		각도책판목록 (1778년경)	누판고 (1796년)	임원십육지 (1835년경)	각도책판목록 (1840년경)	
1	啓蒙篇		○		○	
2	古文百選	○	○	○	○	○
3	論語大全	○	○		○	
4	(論語) 諺解	○	○		○	
5	唐詩品彙	○	○	○	○	○
6	大學大全		○		○	
7	(大學) 諺解		○		○	
8	孟子大全	○	○		○	
9	(孟子) 諺解		○		○	
10	梵音集				○	
11	兵學指南	○				
12	北漢誌	○	○	○	○	
13	史略	○			○	
14	三經四書大全			○		○
15	三經四書諺解			○		○
16	喪禮備要	○	○	○	○	○
17	書傳大全		○		○	
18	書傳諺解		○		○	
19	書傳大全具諺解	○				
20	小學指南		○			
21	詩傳大全	○	○		○	
22	(詩傳) 諺解	○	○		○	
23	新增韻考/(增補) 三韻通考	○	○	○	○	
24	十九史略通攷		○	○		○
25	剪燈新話	○			○	○
26	朱子筆					○
27	周易大全		○		○	
28	(周易) 諺解		○		○	
29	中庸大全		○		○	
30	(中庸) 諺解		○		○	
31	千字文		○		○	○
32	通鑑節要/少微通鑑	○	○	○	○	○
33	八陽經				○	
	합계	15종	24종	9종	26종	10종

「諺解」와 「通鑑」 등과 같이 각각의 목록에 따라 약서명이나 서명의 한자 표기를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도 확인된다.⁸⁾

<표 2> 북한산 지역의 책판 관련기록

시 기	내 용	출 처
1789	북한산성에 보관하고 있는 經書板을 修補하기 위해 공명첩 100장을 얻음	『일성록』
1819	북한산 太古寺에 보관 중인 四書三經의 板本을 중수하는 일에 참여함	(서·발, 간기)
[1803]	북한산성에서 經書의 板本을 重修하는 일을 행함	『而已廣集』 『七言古詩』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지」의 <사찰> 「太古寺」條에는, “태고사에는 私費로 「四書三經」, 「具諺解」, 「少微通鑑」, 「十九史略」, 「唐詩品彙」, 「古文百選」, 「喪禮備要」, 「剪燈神話」, 「三韻通考」, 「千字文」, 「朱子筆」 등 모두 5,700板을 판각하였다. 또한 鑄字 11斗를 준비하였고, 黔炭 1,600石을 마련하여 위급할 때에 쓰도록 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아 <태고사>는 북한산 지역에서 서적 간행을 담당하는 주요 사찰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태고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사서삼경」 목판은 1819년에 중수되었는데, 이 작업에는 朴允默(1771-1849)이 참여하였음을 그의 문집인 「存齋集」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고사>에서 판각한 서적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간행되는 불교서적이 아닌, 유교서적이 主流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8) 한편, 1778년부터 1840년까지의 서지자료들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시대에는 11종의 책판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출판된 서적의 주제 분야는 總經類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通史類와 總集類, 儒家類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누판고」와 「입원십육지」에 수록된 판목은 모두 북한산 <太古寺>에 소장된 것이다. 그밖에 북한산 지역 전체를 다룬 「북한지」에서도 책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지」는 산성을 축성할 당시 八道都摠攝의 직책을 맡은 승려 性能이 도총섭의 직책을 인계할 때 山城의 記事를 정리하여 1745년(영조 21)에 간행한 것이다. 「朱子筆」의 경우, 앞서 언급한 4종의 책판 목록에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책은 「사서」에 해당하는 한 책으로 당시 목록 기입자에 의해 異名으로 표기되었을 수 있고, 혹은 독자적인 새로운 판명으로 중앙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송되었거나 혹은 훼손 및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9) 1793년에 이옥이 쓴 「중흥유기」에는 “여러 절에는 불교경전이 전혀 없고, 오직 <僧伽寺>

3. 북한산 지역의 불서 간행

3.1 서적의 간행의 기록

북한산 지역의 서적 간행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 등의 官撰 史料를 비롯하여 각종 원전자료의 序·跋文, 기타 자료에 나타나는 간행기록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¹⁰⁾ <표 3>에서 19세기 북한산에서 간행된 서적의 상황을 살펴보면, 1853년에 <內院庵>에서 「盧山蓮宗寶鑑」을 비롯하여 「佛說觀無量壽佛經」·「佛說阿彌陀經要解」 등이 開刊되었다.¹¹⁾ 1864년에는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眞經」이 <내원암>에서 刻板되었고, 1878년에는 <감로암>에서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가 刻行되었으며, 1881년에는 <三聖庵> 藏經閣에서 간행된 「佛頂心觀世音菩薩娑陀羅尼經」의 인본이 <국립중앙도서관> 및 <단국대학교 도서관>에 전하고 있다.

와 <扶旺寺>에만 약간 남아 있었다. 이들 사찰에 불교서가 비록 남아있기는 하지만, 책장이 떨어져 나가고 껍데기 실이 흩어져 읽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있는 것은 '結手文'과 「恩重經」, 「法華經」 등의 대어섯 묶음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경전에 능통한 승려가 없음을 알 수 있다."라 하여, 당시 북한산의 사찰에서 불교경전의 유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산에서 간행된 서적으로는 우선 <中興寺>에서 간행된 사항들을 주목할 수 있다. <중흥사>에서 간행된 서적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715년에 鑄字로 「海平尹氏世譜」를 印出한 바 있으며, 1720년에는 「妙法蓮華經」을 留鑄하였고, 1721년에는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을 開板하였다. 한편, 1766년(영조 10)에 校書館에서 인쇄한 「御製小學指南」을 북한산성에 보내어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1781년(정조 5) 3월에는 殿講과 製述에 사용되는 經書들을 활자로 인출하기 위하여 호조에서 경서 3건의 紙地와 물력을 교서관에 지급하였고, 북한산성에 소장된 藏板을 인출하여 進排할 수 있게 하였다.

11) 그 印本이 <동국대학교 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그리고 <송광사> 등지에 전하고 있다.

<표 3> 기록에 나타난 북한산 지역의 서적 간행

시 기	내 용	출 처	소장처
18C	1715 北漢 重興寺에서 鑄字로 『海平尹氏世譜』를 인출함	(서·발, 간기)	규장각
	1720 三角山 重興寺에 『妙法蓮華經』을 留鎮함	(서·발, 간기)	영남대
	1721 三角山 重興寺에서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을 開板함	(서·발, 간기)	국중
	1781 殿講과 製述에 사용하는 경서의 詩冊과 講冊은 호조에서 경서 3건의 紙地와 물력을 외가에 지급하여 북한산성 藏板을 인출하게 해서 進排하도록 함	『일성록』	
	1790 북한산성에 있는 경서 2건, 운서 5건씩 인쇄하여 매 卷마다 寶章을 찍어 존경각에 보관케 함	『국조보감』 『왕조실록』 『일성록』	
19C	1853 『廬山蓮宗寶鑑』을 三角山 內院庵에서 開刊함	(서·발, 간기)	동국대
	1853 三角山 內院庵에서 ①『佛說觀無量壽佛經』, ②『佛說阿彌陀經要解』를 開刊함	(서·발, 간기)	㉔규장각 ㉕송광사
	1864 三角山 道詵菴에서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眞經』을 刻板 인출함	(서·발, 간기)	국중
	1878 三角山 甘露菴에서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 刻行함	(서·발, 간기)	동국대
	1881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이 三角山 三聖菴 藏經閣에서 刊行됨	(서·발, 간기)	국중 단국대
20C	1907 三角山 安養庵에서 『佛說阿彌陀經』이 印布됨	(서·발, 간기)	서울대

3.2 주요 전존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王室이나 私家에서 佛力의 힘으로 死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寺刹에서 佛典을 간행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사찰에서는 ‘刻板, 印出, 粧冊’ 등에 숙련된 승려들을 겸비하게 되었고, 사찰에서의 출판활동은 자연스레 인쇄술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승유억불정책을 반영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사찰의 간행활동은 고려시대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고, 판각의 기술 또한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북한산 지역 내 간행된 印本에 대한 검토로 현존하는 刊本에 대한 문헌조사에 바탕을 두었으며, 각종 문헌과 2차 서지자료 및 원전의

서·발문, 소장처의 목록 등에 나타나는 간행기록을 종합하여 <표 4>와 같이, 북한산에서 간행된 서적의 현황을 사찰별로 개관하여 보았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의 고서 소장처에서 확인되는 북한산판 목록을 조사하고, 접근 가능한 자료들은 實查하였다.

<표 4> 국내·외 소장된 북한산(산내 사찰)에서 간행된 서적의 현황

간행처	서 명	편저자	판본	책수	간년	소장처
甘露庵 (9종)	甘露法會	甘露法會	全史字	1책	1882	규장각
	蓮邦詩選	廣貴	목판	1책	1882	국중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涵虛堂	목판	1책	1882	규장각
	金剛經正解	概綵	全史字	88장	1883	국중
	法海寶筏	蓮舫道人	全史字	1책	1883	국중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玄奘	全史字	1책	1883	예일대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	正觀	목판	4권2책	1878	국중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	朴銑默	목판	20장	1908	국중
	佛說天尊却瘟瘡神呪經	朴永默	목판	8장	1908	규장각
內院庵 (1종)	廬山蓮宗寶鑑	普度	목판	2권2책	1853	고려대
道說菴 (3종)	佛說觀無量壽佛經	璽良耶舍	목판	1책	1853	동국대
	佛說阿彌陀經要解	鳩摩羅什	목판	1책	1853	송광사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眞經	鳩摩羅什	목판	1책	1864	국중
太古寺 (北漢城) (5종)	詩傳大全	胡廣	목판	20권10책	1716	경기대 전주대
	中庸章句大全	朱熹	목판	1책	1716	국중
	北漢誌	聖能	목활자	1책	1745	국중 영남대
	中庸章句大全	朱熹	목판	1책	1802	규장각
	論語集註大全	胡廣	목판	20권7책	1803	연세대
三聖菴 (2종)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	姜在喜	목판	3권1책	1881	국중
	高王觀世音經	未詳	목판	1책	1908	동국대
安養庵 (2종)	佛說阿彌陀經諺解	鳩摩羅什	목판	2권1책	1907	원광대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安養庵	목판	3장	1915	국중
重興寺 (3종)	妙法蓮華經	鳩摩羅什	목판	1책	1720	대흥사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智還	목판	3권3책	1721	국중
	海平尹氏世譜	未詳	목활자	14책	1851	규장각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산에서 간행되거나 북한산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 가운데 현존하는 서적은 모두 25종으로 나타났으며, <태고사>를 제외하면 佛典類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¹²⁾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북한산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먼저 刊行處別로 분류하고, 판본별 간행 사항과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 후, 그 본문의 구성 체제 및 내용, 판본에 나타나는 주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1 甘露庵

<감로암>에서 간행된 서적은 모두 9종으로, 북한산 지역에서 간행 印本 중 이 암자에서 간행된 서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들 자료에 대하여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1)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

<그림 1>의 『관세음보살묘응시현제중감로』는 목판으로 간행되었고,¹⁴⁾ 약서 명으로 『濟衆甘露』라 불리기도 하며, 甘露法主人 普月居士 정관이 1872년(고종 9) 겨울부터 1875년 여름까지 4년 동안 ‘7處 11會의 妙蓮結社’¹⁵⁾의 범회에서 강설한 법문을 수록한 책이다.

普光居士 普圓과 印潭居士 性月, 그리고 海月居士 性湛과 玄虛居士 慈雲이 함께 10品 4권 2책으로 엮어, 1877년에 간행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¹⁶⁾ 아마도

12) 이는 20세기에 간행된 석인본과 연활자본을 제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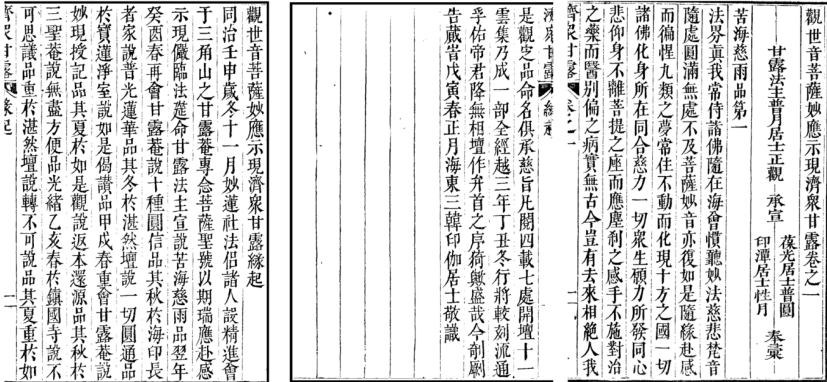
13) <감로암>은 그 창건년도 및 사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현재 잘 검색이 되지 않는다. 다만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에 수록된 緣起의 기록을 통하여, <감로암>은 ‘삼각산에 소재하고 있는 암자’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14)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BC古朝鮮21-356)되어 있다.

15) ‘妙蓮結社’는 조선 고종 때 삼각산 <甘露庵>에서 『妙法蓮花經』을 신봉하는 거사들이 ‘觀世音菩薩普門品’에 의거하여 관세음보살의 神妙力을 믿고 명호를 염송하며 수행하던 結社이다.

16) 전체 4권 2책 가운데, 권1과 권2는 寶光居士 普圓과 印潭居士 性月이, 권3과 권4는 海月居士와 玄虛居士가 편집하였다. 권1에 1-4품, 권2에 5-7품, 권3에 8-9상품, 권4에 9-10하품이 실려 있다. 책의 첫머리에 純陽子가 쓴 서문과, 印伽居士가 쓴 緣起가 실려 있다. 각

이는 목판 刊刻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해인 1878년에 작성된 緣起¹⁷⁾에 이 책의 편찬 경위 및 수록된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¹⁸⁾



<그림 1>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의 緣起 및 卷首

‘묘련결사’에서는 1875년 여름에 如是觀에서 각 품의 이름을 정하고, <표 5>와 같이 4년 동안 7개의 장소(處)에서 무려 11회에 걸쳐 그 강설을 완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1877년(丁丑) 겨울에 이 책을 교정하여 판각하려 할 때 無相壇에서 孚佑帝君이 서문을 작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⁹⁾

- 품의 명칭은 ‘苦海慈雨品第二, 十種圓信品第二, 普光蓮花品第三, 一切圓通品第四, 如是偈讚品第五, 妙現授記品第六, 返本還源品第七, 無盡方便品第八, 不可思議品第九, 不可思議品第十’이다. 이 책의 체제는 卷首에 唐나라 도사인 純陽子(呂洞賓)의 序文과 印伽居士의 緣起를 두었으며, 이어서 본문을 수록하고 있다.
- 17) 緣起: “同治壬申(1874)歲冬十一月妙蓮社法侶諸人設精進會于三角山之甘露庵專念菩薩聖號以期端赴感示現儼臨法筵命甘露法主宣說 … 戊寅[1878]春正月海東三韓印伽居士敬識.”
 - 18) 즉 1872년(同治 壬申) 겨울부터 1875년(光緒 乙亥)까지 甘露法主 보월거사가 설법한 내용을 비롯하여 설법한 장소를 시기별로 나열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 19)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10행 20자’에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0.0cm, 가로 11.0cm이며, 魚尾는 ‘上 下向黑魚尾’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동일 판본이 <안동대학교 도서관> 소장본(D22.31-정16기)을 비롯해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C04-0007),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D218.42-정16기) 등이 있음.

<표 5>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의緣起에 나타나는 설법 내용, 설법한 장소 및 시기

년 도	계 절	설 법 장 소	설법 내용
1872년(同治 壬申)	冬	妙蓮社 法會, 三角山 甘露菴	苦海慈兩品
1873년(癸酉)	春	甘露菴	十種圓信品
	秋	海印長者家	普光蓮華品
	冬	湛然壇	一切圓通品
		寶蓮淨室	如是偈讚品
1874년(甲戌)	春	甘露菴	妙現授記品
	夏	如是觀	返本還源品
	秋	三聖庵	無盡方便品
1875년(光緒 乙亥)	春	鎮國寺	不可思議品
		湛然壇	轉不可說品

(2) 「甘露法會」

「甘露法會」는 19세기 말 북한산에서 결성된 관음신앙의 신앙결사체인 ‘甘露法會’의 要綱書로서, 현재 中國 <雲南大學校 圖書館>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²⁰⁾ 이 「감로법회」는 全史字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며, 표지에는 ‘甘露法會 結社文 發願文 聲念銘 社規’라고 墨書로 기록되어 있다. 권수제와 관심제는 ‘甘露法會’²¹⁾라 표기되어 있다. 책머리에는 葆光居士의 기문을 두었으며, 이어서 본문은 ‘結社文, 發願文, 聲念銘, 社規’를 수록하고 있다. 권말에 수록된 기문의 말미에는 ‘光緒壬午仲春甘露社藏’이란 기록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이 책이 1882년 甘露社[감로결사]에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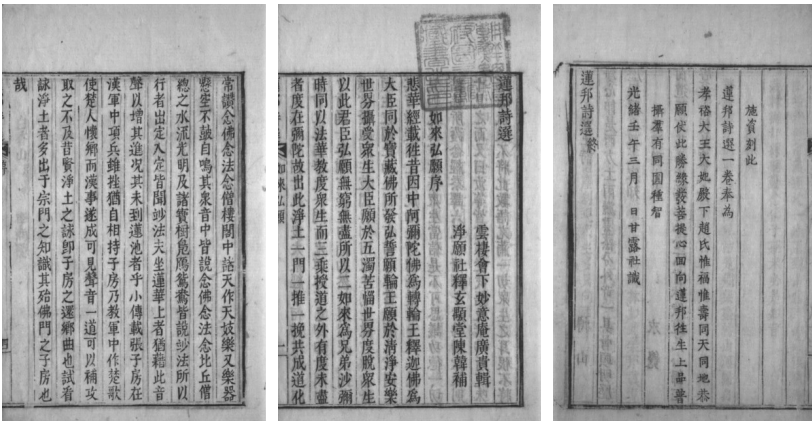
20)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濟衆甘露』(奎 7834)를 실사한 결과, 감로법회의 창시자는 普月居士 正觀이며, 「감로법회」의 撰者인 葆光居士는 정관의 문하로 그 범명이 ‘普圓’임을 밝히고 있다. 「감로법회」는 이 법회의 기본 경전인 『濟衆甘露』가 간행된 후, 감로법회를 운영하기 위한 실천 요강서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21) 여기서 ‘甘露’는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의 淨化用으로 지니고 다니는 淨水를 뜻함.

22)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10행 20자’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자되어 있으며, 변란은 사주 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1.5cm, 가로 15.0cm, 어미는 ‘상 하향백어미’이다.

(3) 「蓮邦詩選」

<그림 2>의 「연방시선」은 중국 주나라부터 청나라까지의 역대 詩篇들 가운데, 讚佛과 歸依을 주제로 한 작품 504首를 추려서 엮은 일종의 찬불·귀의 詩選集으로 明나라 廣貴가 404수를 편집하고 淸나라 승려 陳韓이 100수를 추가한 자료를 1882년에 삼각산 <감로암>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²³⁾



<그림 2> 「蓮邦詩選」의 序文, 卷首, 卷末

卷首에 수록된 古愚居士의 序文²⁴⁾에 萬曆年間に 妙意菴에 거주하는 廣貴가 ‘西方, 勸念佛, 懷淨土, 願往生’의 뜻을 담은 고금의 偈를 분류하여 「蓮華世界詩」을 撰하였고, 여기에 淨願社 玄願 長老가 100수를 보태어 「蓮邦詩選」라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²⁵⁾

23) 현재 <국립중앙도서관>(BC古朝21-251)을 비롯해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812.108 연방시)되어 있으며, 이 판본의 번각본이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에 전한다.

24) 序文: “... 萬曆/間雲棲妙意菴廣貴輯古今尊宿讚西方勸念佛懷/淨土願往生之偈分類撰成蓮華世界詩一蓋淨/土文錄充棟汗牛此輯又何爲也凡詩歌之協於聲... 淨願社玄願長老拾遺增/錄一百餘首改其籤曰蓮邦詩選...”

25) 이어 광귀가 쓴 原序를 비롯해 讚佛詩를 찬한 사람의 명호와 연대를 적은 蓮邦詩選年代名號와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체제는 권1에서 권9까지 주제별로 분류하였고 수록된

(4)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圓覺經』으로 약칭되는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中 2213)으로, 涵虛堂 得通己和(1376-1433)가 註解하여 편찬한 것이다.²⁶⁾ 이 책은 1882년(고종 19)에 <감로암>에서 3권(上·中·下) 1책의 목판으로 간행되었으며, 전체 분량은 122장에 달한다.²⁷⁾ 권말에 1882년(고종 19)인 ‘光緒 8년 8월에 王室과 信徒의 도움으로 甘露社에서 木板으로 印出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施資刻此’라 하여 간행에 참여한 비구와 시주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²⁸⁾

(5) 『金剛經正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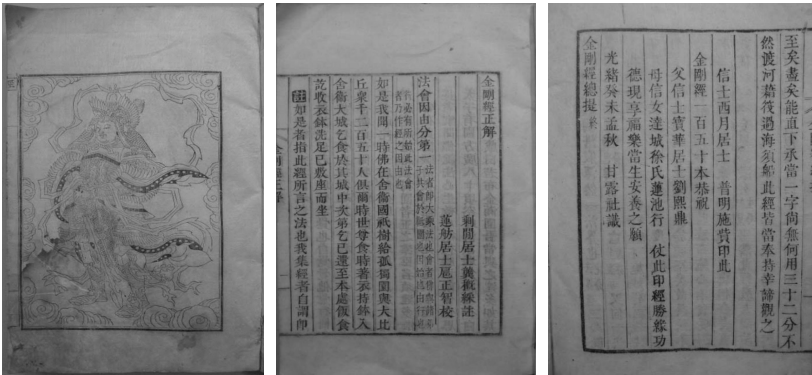
<그림 3>의 『金剛經正解』는 鳩摩羅什이 漢譯한 『金剛經』에 蓮舫居士 扈正智가 교정하고, 剩間居士 龔綵概가 註를 더하여 편찬한 일종의 註釋書이다.

이 책은 1816년(순조 16)에 만들어진 畵史字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며,²⁹⁾³⁰⁾

시편은 총 504수로 각 권마다 시편의 수를 달리하여 수록하고 있다. 특히 ‘中峯, 妙意, 優曇, 博山’ 등의 작품은 비교적 많은 수의 시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卷末 사항에는 이 책을 간행하게 된 연기와 간기가 나타난다.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施資刻此/ 蓮邦詩選一卷奉爲/ 孝裕大王大妃殿下趙氏惟福壽同天地恭/ 願友此勝緣發菩提心回向蓮邦往生上品普/ 攝羣有同種智/ 光緒壬午三月 日甘露社識”.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10행 20자’에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0.0cm, 가로 13.9cm, 어미는 ‘상 하향2엽화문어미’이다.

- 26) 『원각경』은 조선시대부터 불교 전문강원 ‘四教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왔다.
- 27) 경전의 본문은 經文을 단락 단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그 아래 한 단 낮추어 註解를 첨가하는 형식 갖추고 있으며, 경문의 인용 시 해석의 중간 부분의 글자체를 구분하여 ‘經云’으로 시작되는 간단한 문장을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2보살들의 문답 12章 가운데, 권상은 1-3장(45장), 권중은 4-8장(49장), 권하는 9-12장(28장)으로 편성하였다. 12장의 말미에는 解가 없이 原文만을 수록하고 있다.
- 28)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10행 20자’에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1.4cm, 가로 14.2cm.이다.
- 29) 본문의 시작에 앞서, 普眼菩薩의 變相圖와 ‘主上殿下壬子生李氏 聖壽萬歲/ 王妃殿下辛亥生閔氏 聖壽齊年/ 大王大妃殿下辰生趙氏 聖壽萬歲/ 王大妃殿下辛卯生洪氏 聖壽萬歲/ 世子邸下甲戌生李氏 鶴筭萬歲/ 嬪宮邸下辛未生閔氏 實齡不疆’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30) 전체 8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구성 체제를 살펴보면 먼저 1장에는 王室祝願文에 이어 六祖大鑑禪師가 설한 <金剛經口訣>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法會因由分, 善現起請分, 大乘正宗分, 妙行無住分 … 和見不生分, 應化非眞分’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금강경』의 분류체계 가운데 양나라 昭明太子의 32분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권말에 수록된 王化隆이 쓴 ‘金剛經總提’의 말미에는 이 책을 간행하게 된 緣起와 刊記가 새겨져 있다.³¹⁾



<그림 3> 「金剛經正解」의 變相圖, 卷首, 卷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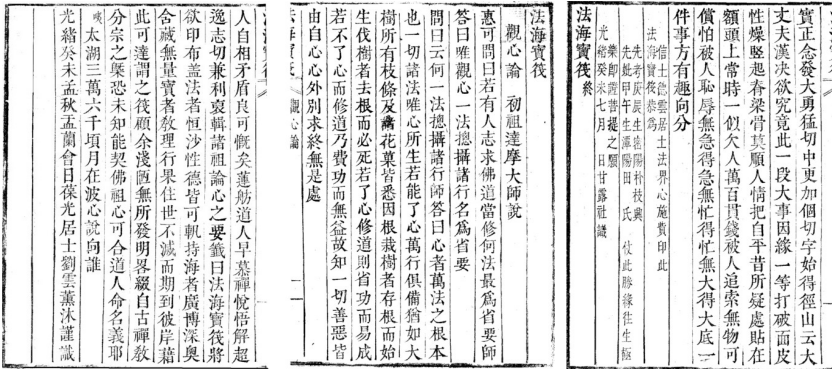
즉, 1883년(光緒 癸未) 가을에 <甘露社>³²⁾에서 西月居士 普明이 재물을 베풀어 『금강경』 150본의 印經을 恭祝[布施(보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이 印經의 공덕으로 인하여 서월거사의 부친인 寶華居士 劉熙鼎과 모친인 達成徐氏(法名: 蓮池行)가 現生에서는 福樂을 누리고 來生에서는 安養世界(極樂淨土)에 往生하기를 祈願하고 있다.³³⁾

(6) 「法海寶筏」

<그림 4>의 「법해보筏」은 청나라 劉雲이 중국·한국의 역대 祖師들의 法語를 輯錄한 것으로, 初祖達摩의 「觀心論」과 「血脈論」을 시작으로 하여 三祖僧璨

31) “信士西月居士 普明施贊印此/ 金剛經一百五十本恭祝/ 父信士寶華居士劉熙鼎/ 母信女達成徐氏蓮池行 仗此印經勝緣功/ 德現享福樂當生安養之願/ 光緒癸未孟秋 甘露社識.”
 32) 이는 <감로암>에서 結社한 ‘묘련결사’와 같은 결사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3)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10행 20자’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자되어 있으며,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1.5cm, 가로 14.9cm, 어미는 ‘상 하향백어미’이다. 동일 판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화산C3-A97)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BC古朝21-405),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본(A-1-26)으로 전해진다.

의 「信心論」, 五祖弘忍의 「最上乘論」, 黃檗斷際의 「傳心要法」·「宛陵錄」, 高麗普照國師 知訥의 「眞心直說」·「修心訣」, 博山無異의 「禪警語」 등 6명의 禪師가 저술한 9편의 論心要訣을 수록하여, 1883년에 ‘孟蘭會 甘露社’³⁴⁾에서 全史字로 간행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 책이 19세기 말기에 특정 신앙결사인 이른바 禪宗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9종의 도서들을 하나로 묶어서 간행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책의 권말에는 刊記 및 간행 참여자의 기록이 새겨져 있다.³⁵⁾ 이후 이 판본의 필사본³⁶⁾이 편찬되었으며, 본문을 증보하여 「禪門撮要」라는 서명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그림 4> 「法海寶筏」의 序文, 卷首, 卷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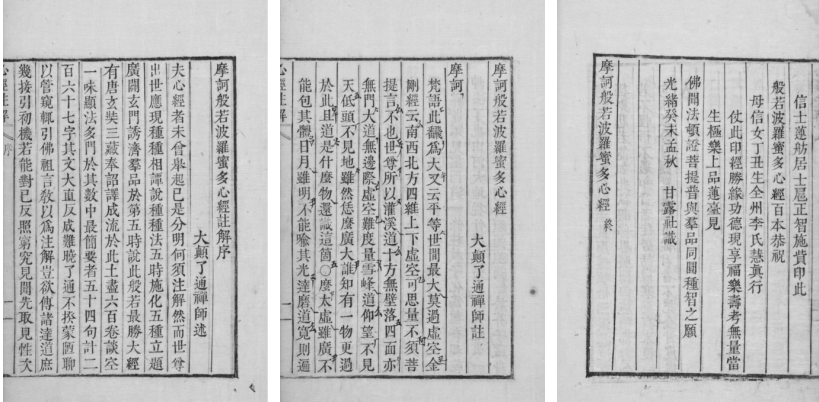
34) ‘우란분회의 범회를 개척하는 감로결사’의 의미로 보인다.

35) “信士德雲居士法界心施贊印此/ 法海普筏恭爲/ 先考庚辰生密陽朴枝興/ 先妣甲午潭陽田氏 仗此勝緣往生極/ 樂卽證菩提之願/ 光緒癸未七月 日甘露社識” 즉, 1883년(光緒 癸未) 7월에 甘露社에서, 先考 甲辰生 밀양박씨 朴枝興과 先妣 本貫 담양 田氏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하여, 그 자식인 德雲居士 法界心이 재물을 베풀어 「범해보결」을 刊印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10행 20자’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자되어 있으며,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1.5cm, 가로 15.0cm, 어미는 ‘상 하향백어미’이다.

36)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D219.7-영16번).

(7)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그림 5>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³⁷⁾은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YAJ-K7b.2)으로, 1883년(고종 20)에 全史字로 간행되었다.³⁸⁾



<그림 5>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의 序文, 卷首, 卷末

당시 「금강경정해」와 더불어 헌종과 신정왕후, 효정왕후, 고종, 명성황후 등 王室의 長壽를 발원하고자 불경을 대대적으로 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³⁹⁾ 이 책의 권말에는 간기 및 간행 참여자의 기록이 새겨져 있다.⁴⁰⁾ 즉, 1883년(光緒 癸未)

37) 반야부 경전은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래되어 姚秦의 鳩摩羅什을 비롯해 많은 譯僧들에 의해 한역 되었다. 당나라 玄奘이 梵本 般若經類를 漢譯하여 『大般若波羅蜜多經』 600권을 편찬하였는데,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은 이 중의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大般若波羅蜜多經』의 底本은 ‘序分, 正宗分, 流通分’ 등으로 구성된 廣本과, 正宗分만으로 구성된 略本 두 종류로 구분된다. 현장의 『大般若波羅蜜多經』은 약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般若心經』으로 불리며 유통되었다.

38) 이 책은 당나라 大顛了通 禪師가 주석하였으며, 전체 분량은 變相圖와 서문을 포함하여 37장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의 卷頭に 수록된 變相圖 및 기문은 1883년 <감로사>에서 간행된 『金剛經正解』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다.

39) 이어 大顛이 쓴 서문이 수록되었으며,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이란 권수제와 함께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極行까지 올려 쓰고, 대전선사의 注文은 한 단 낮추어 기록하였다.

40) “信士蓮舫居士廬正智施貨印此/ 般若波羅蜜多心經 百本恭祝/ 母信女丁丑生全州李氏慧眞行/ 仗此印經勝緣功德現享福樂壽考無量當/ 生極樂上品蓮臺見/ 佛開法頓證菩提普

음력 7월 감로결사에서 '母 信女 丁丑生 全州 李氏'의 慧眞行을 축원하고, 이 「반야심경」의 印經으로 인하여 모친인 전주이씨가 현생에서 福樂長壽하시고 내 생에서는 극락세계의 上品에 왕생하시기를 바라며, 蓮舫居士가 재물을 베풀어 「般若波羅密多心經」 100본을 印刊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8)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

<그림 6>의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은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을 바탕으로 朴銑默이 새롭게 增輯한 일종의 密教陀羅尼經으로, 六字眞言⁴¹⁾에 의해서 禪定을 닦는 行法과 공덕을 설하고 있다.⁴²⁾



<그림 6>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의 標題, 卷首, 卷末

이 책의 서문에 '1908년(戊申) 가을에 東耘 朴銑默이 추천한 「불설천존각온황 신주경언해」를 읽고 진리에 매료되어 이 책을 간행한다!'라는 간행경위를 밝히고

與羣品同圓種智之願/ 光緒癸未孟秋 甘露社識."/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10행 20자에 변란은 사주단번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30.8cm, 가로 14.8cm, 어미는 '상 하향백 어미'이다.

- 41) 한국불교계에서 가장 많이 외우는 진언 가운데 하나이며 6字는 '옴마니반메훴'이다.
- 42) 현재 <국립중앙도서관>(BC古朝21-355)과 <서울대학교 규장각>(古 1730-16)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목판본 1책이며, 卷首에는 夢菴居士 崔奎憲이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있다.⁴³⁾ 또한 ‘大施主秩’에는 대시주자인 東菴居士 姜在喜가 부모님의 長壽와 極樂往生을 기원하기 위하여 간행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⁴⁴⁾ 이어 1908년에 장운원이 쓴 ‘跋文’에는 ‘1560년에 간행한 판본이 없어서 東耘 朴詵默이 增輯하여 간행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9) 『佛說天尊却瘟瘧神呪經』

『佛說天尊却瘟瘧神呪經』⁴⁵⁾은 朴永默과 金顯來가 參閱하고, 박선묵과 황봉연이 번역한 것으로, 1908년에 重刊되었다.⁴⁶⁾ 『却瘟瘧神呪經』라고 약칭되기도 하는 이 경은 병을 치유하는 靈驗記를 수록한 일종의 밀교경전이다.⁴⁷⁾ 발문에 이어 ‘디시쥬질’에는 ‘1908년 5월에 강희재가 부모님의 長壽와 그 死後의 淨土往生을

43) 卷首題면에는 ‘大韓國 三寶歸依信士 東耘朴詵默 增輯 廣化李錫圭 參閱’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東耘 朴詵默이 增輯하고, 廣化 李錫圭가 參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사이사이에는 諺讀이 있으며, 권말에는 ‘次發四無量心’과 ‘大施主秩’이 수록되어 있다.

44) 이어서 7언절구 형식의 ‘東耘居士發願文’과 ‘舊跋’ 그리고 張潤元 居士가 쓴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舊跋’은 1560년에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을 간행할 때 金殷鼎이 쓴 것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湖南後人 遁世堂이 중국으로부터 구해온 이 범문의 판본을 널리 유포시키고자 韓千孫, 金億斤, 裴萬疇’의 도움으로 1560년(嘉靖 庚申)에 간행에 착수하여 그해 여름에 마쳤음을 밝히고 있다. / 이 책의 부록으로는 ‘佛說解冤家符, 佛說護身命符’ 등 4개의 부적(符籙)과 각각에 해당하는 祝文과 靈驗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장에 수록된 ‘六字大明王神呪經刊印同緣錄’에는 ‘居士 夢惺 安東元와 海春 鄭元植, 一圓 金敬熙’가 書寫하고 居士 慧蓮 金顯來 외 5명이 校正하여, 1908년(음희 2년) 5월에 西賓精舍에서 開刊하여 甘露社에 소장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 ‘10행 20자’에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16.4cm, 가로 11.0cm이며, 어미는 ‘상하 내향2엽화문어미’이다.

45)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古1730-63).

46) 권말에 수록된 박선묵의 발문에는 그 간행경위가 상세하다. 즉 ‘1906년(丙午) 4월에 雷虛法師을 만나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을 請求하던 때, 雷虛法師은 ‘장경각에 소장된 대장경 가운데 『佛說天尊却瘟瘧神呪經』을 인출하여 受持讀誦하면 병이 치유되니, 이에 책을 板刻印出하여 널리 유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 권을 받아 간직하였다. 이후 東菴居士 姜在喜가 부모를 위해 경전을 간행하기를 기원하여, 이 책을 간행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47) 이 책의 본문은 漢文 原文과 諺解文을 두었으며, 권말에 수록된 跋文과 刊記도 언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문의 편성체제는 부처가 중생들에게 질병을 치유할 방법론을 물으면 ‘七鬼神名字’라는 축문을 설한 뒤 각각의 축문에 적합한 지송 방법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발원하기 위해 ‘박선묵, 김동찬, 정원식’의 주도 아래 이 책을 판각하여 1천권을 인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간행 시기와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⁴⁸⁾ 박선묵은 같은 해 5월에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도 인출하였는데, 그 간행 기록을 살펴보면 동일한 시간, 장소, 동일한 시주자에 의해 이 책과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이 동시에 간행되어 감로사에 보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⁹⁾

3.2.2 內院庵

북한산(삼각산)에 위치한 <內院庵>⁵⁰⁾은 창건연대와 관련한 자료가 미비하여 현재까지 어느 시기에 누가 창건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⁵¹⁾ <내원암>에서 간행된 판목이 현재 경기도 수락산 <興國寺>에 소장되어 있다.⁵²⁾

(1) 『廬山蓮宗寶鑑』

<그림 7>의 『廬山蓮宗寶鑑』은 <용화사 목담자료관>에 소장된 판본(儀-10)으로 일종의 彌陀淨土信仰書이다.⁵³⁾ 이 책은 1853년에 삼각산 <내원암>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전체 10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권수면에는 1312년(元 仁宗 皇慶 1)에 普度の 序文을 두었다. 서문에는 仁宗(今上皇帝)이 왕세자 시절에 본서를 받들어 간행하게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⁵⁴⁾

48) 간기에 대해서는 책표지에 나타난 ‘隆熙戊申重刊’이란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9)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10행 20자’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변란은 사주쌍변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23.3cm, 가로 15.1cm이고, 어미는 ‘상 하향2엽화문어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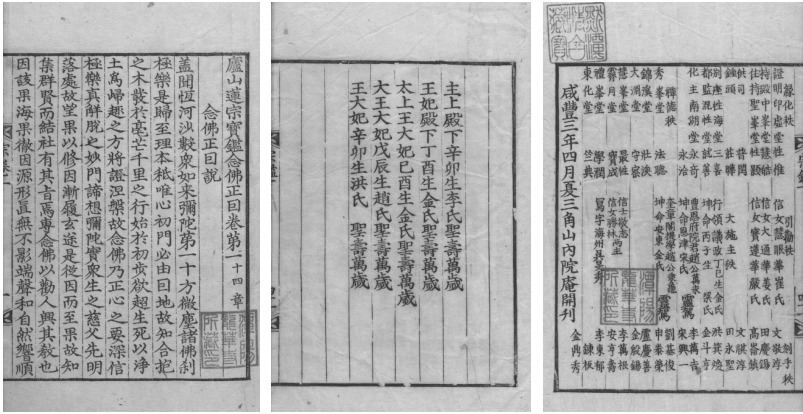
50) 지금의 <內院寺>를 말한다.

51) 하지만 김정호의 『首善全圖』와 1859년(철종 10)에 새긴 『白衣大士佛圖』의 목판이 남아 있어 19세기 이전부터 <내원암>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2) 소장된 판목의 수는 『廬山蓮宗寶鑑念佛正因』 65판, 『佛說阿彌陀經要解』 26판, 『佛說觀無量壽佛經』 21판이다.

53) 원래 이 책은 원나라 淨土宗 系白蓮宗의 승려 普度가 편찬한 것이다.

54) 권수면에 ‘臣僧普度謹自編集’이라 기록하여 이 책의 撰者는 승려 ‘普度’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림 7> 「盧山蓮宗寶鑑」의 卷首, 祝願文, 卷末

이어 조선 왕실의 聖壽萬歲를 기원한 발원문을 비롯하여, ‘咸豐三年(1853)四月夏三角山內院庵開刊’이란 간행기록과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별도로 새겨 두었다.⁵⁵⁾

(2) 「佛說阿彌陀經要解」

<그림 8>의 「佛說阿彌陀經要解」는 구마라습이 한역한 「불설아미타경」에 明나라 智旭이 주석을 더한 것으로, 석가모니가 淨土에 관하여 설법한 내용을 담고

‘보도’와 관련한 기록이 본서에 수록된 수종의 서문과 발문에서 나타난다. 卷首題 아래에는 ‘潭陽龍華寺所藏印’이란 장서인이 찍혀있다. 이 책의 목차서명은 ‘念佛寶鑑’, 관심서명은 ‘宗鑑’이다. 권두서명 아래에 ‘臣僧普度謹自編集’이라는 기록이 있어 편자를 알 수 있다. 본문의 편성체제는 전체 10門으로 나누고 각각의 小目을 두었다. 卷末에는 ‘名德題跋’이라 하여 ‘明州天童長老東岩和尚跋語, 廬山白蓮宗主悅堂和尚跋語’ 등 10여종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발문은 이 책의 初刊 당시에 수록된 것이다. 1429년(明 仁宗 宣德 4) 僧錄司 右講經僧 古并이 쓴 발문을 통해, 이 책은 明 시대에 간행된 판본을 重刊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5) 간행 참여자 명단에는 ‘緣化秩과 禮德秩, 引勸秩, 大施主秩, 刻手秩’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각수질에는 ‘文敬淳, 田慶錫, 高崙嶺, 文祺淳’ 등을 포함하여 모두 17명이 책의 판각 작업에 동원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 ‘10행 20자’에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0.4cm, 가로 14.7cm이며, 어미는 ‘상하 내향2회화문어미’이다.

있다.⁵⁶⁾ 현존하는 『아미타경』의 한문본 판본은 고려시대부터 여러 사찰에서 수차례 간행되었다.⁵⁷⁾ <내원암>에서 간행된 판본은 변상도가 있으며, 漢文으로만 간행된 판본이다. <그림 8>의 책은 1853년에 목판본 1책으로 간행되었다. 권수 면에는 영의정 金左根 양위의 大施主 기록, 錦溪堂壯渙의 서문, 3장의 변상도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⁵⁸⁾ 또한 ‘咸豐三年四月夏三角山內院庵開刊’이란 간행기록을 새겨두었는데, 이를 통해 이 책이 1853년(함풍 3) 여름에 삼각산 <내원암>에서 開刊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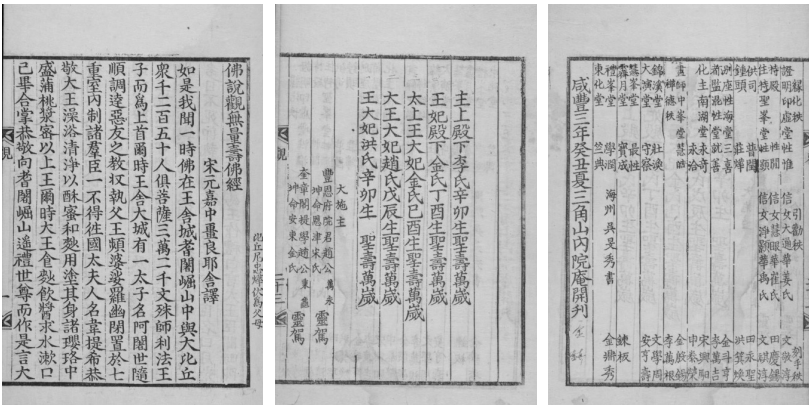


<그림 8> 『佛說阿彌陀經要解』의 序文, 變相圖, 卷末

- 56) 『佛說阿彌陀經』의 판본은 5세기 초 구마라습이 번역한 판본을 비롯하여, 5세기 중엽 求那跋陀羅가 한역한 판본, 7세기 중엽의 玄奘이 한역한 판본, 티벳 번역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마라습의 번역본이 주로 보급 유통되었다.
- 57) 이러한 간행 사항은 언해본과 『六經合部』를 합철하여 간행된 판본을 제외하고, 사찰 단행본만을 대상으로 할 때이다. 또한 이러한 판본들은 형태상 상단에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고, 하단에는 경전의 원문을 수록한 판과 순수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판본으로 나누어진다.
- 58) 책의 卷末에는 ‘緣化秩, 大施主秩, 刻手秩’ 등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였고, 판을 새긴 刻手는 ‘文敬淳, 田慶錫, 高崙鎮 외 14명’으로 확인된다.
- 59)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 ‘10행 20자’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자되었으며,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0.7cm, 가로 14.9cm, 어미는 ‘상하 내향2열화문어미’이다. 이러한 형식을 가진 판본이 현재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A-4-7)되어 있다.

(3) 「佛說觀無量壽佛經」

<그림 9>의 「佛說觀無量壽佛經」⁶⁰⁾은 ‘明나라 道孚가 간행한 「佛說觀無量壽佛經」⁶¹⁾을 1853년(철종 4)에 삼각산 <내원암>에서 開刊한 것이다.⁶²⁾⁶³⁾ 권수에는 1425년(洪熙 元年)의 어제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 靈山衆會와 16妙觀을 나타낸 변상도를 두었다.<그림 10> 참조)



<그림 9> 「佛說觀無量壽佛經」의 卷首, 祝願文, 卷末

권말에는 왕실의 聖壽萬歲를 기원한 발원문을 비롯하여 刊記 및 간행 참여자 명단을 별도로 새겨 두었다.⁶⁴⁾ 이어 말미 부분에는 吳旻秀가 글씨를 쓰고 金昇秀가 鍊板하여, 1853년(咸豐 3) 삼각산 <內院庵>에서 왕의 外戚인 豐壤趙氏의

60) 미국 <에일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61) 이러한 明나라 판본은 明 인종이 그의 부친인 太宗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51년에 간행한 것이다.
 62) 淨土思想에 바탕을 둔 이 경전은 阿彌陀佛의 因行과 果德을 설하고 있다.
 63) 이 경전은 宋나라 晁良耶舍의 번역본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卷末에는 ‘皇上의 長壽를 기원하기 위해 간행한다’는 道孚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卷首 부분에 수록된 16妙觀의 변상도에 대한 해설이 기록되어 있다.
 64) 그 기록을 살펴보면 ‘文敬淳, 田經錫 외 11명의 刻手秩 13명’을 비롯하여 ‘緣化秩 10명’·‘引勸秩 3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真經」의 變相圖, 卷首, 卷末

이와 같은 「北斗經」은 1864년(同治 3) 음력 초하룻날 삼각산 <도선암>에서 판각 인출하여, 廣州 修道山에 소재한 <奉恩寺>에 소장한 것이며, 그 본문이 30장에 달하고, 版心에는 ‘延命經’이란 版心題와 張次를 새겨두었다.⁶⁸⁾ 본문의 말미에는 王室의 長壽를 기원하는 축원문과 간행에 참여한 시주자명을 새겨두었다.⁶⁹⁾

에서 간행된 목판본(<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본>(A-7-26))을 비롯하여 19세기에 간행된 全史字本(<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中 2214)), 간행 미상인 목판본 등이 간행되었다.

68) 이 책의 앞표지 내면에는 ‘甲申四月日册主 …’라는 墨書記錄이 있으며, 卷首에는 2張에 걸쳐 도교의 신선들을 표현한 변상화가 수록되어 있다. 권수면의 우측하단에는 ‘現運堂勝洞’이라는 施主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오언절구의 형식을 갖춘 ‘開經玄蘊呪’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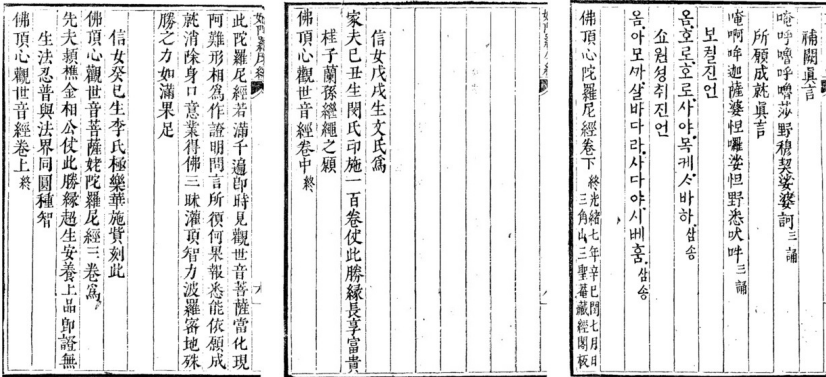
69) 이 책의 참여자 기록을 살펴보면, 書師는 比丘 ‘奉衍’이, 書寫에는 ‘海雲堂 天雨’가 刻字는 信士 ‘喜喆’ 등이 간행하였음을 밝혀두고 있다. 이어 ‘同治三年甲子正月三角山道說菴板刻印出而移安于廣州修道山奉恩寺板藏’이라는 간행 기록이 확인된다. 이 책의 말미에는 육언절구형식의 ‘七星陀羅尼’와 해운 천우의 ‘延命經跋’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10행 20자’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자되어 있으며,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2.0cm, 가로 15.0cm, 어미는 ‘상 하향흑어미’이다.

3.2.4 三聖菴

<삼성암>은 북한산 동쪽 칼바위능선 자락에 위치한 사찰이다.⁷⁰⁾ 그 창건 시기는 1870년에 지금의 <삼성암> 자리인 천태굴에서 3일간 독성기도를 올리던 한양 거주 불교도 7명이 사찰의 창건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창건연대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

<그림 12>의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BC古朝21-291)으로, 1881년(고종 18) <三聖庵>에서 판각한 것을 28년 후인 1908년 姜在喜에 의하여 간행된 것이다.



<그림 12>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의 卷上·中·下의 卷末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은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의 諺譯本으로,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오로지 마음으로 읽고 몸에 지니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陀羅尼의 神通力을 설명한 밀교

70) 현 수유동 488번지에 위치하며, <조계사>의 末寺로 ‘那般尊者 기도 도량’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한다.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13세기 초 이전부터 간행되어 전해진 것으로 여겨진다.⁷¹⁾ 이 책은 1881년에 삼각산 <삼성암>에서 판각한 것을 1908년 강희재의 도움으로 500부를 인쇄하여 배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²⁾

(2) 『高王觀世音經』

이 책은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D213.199-천57)으로, 불경 4種이 合綴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⁷³⁾ 본래 목록상에는 ‘천수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高王觀世音千手陀羅尼經’이라는 제첩제에 의하여 표기된 것으로 보여 진다. 標題에 ‘天尊却瘟瘧神呪經’과 ‘天尊却瘟瘧神呪經’이란 기록이 있으며, 이 책은 1908년(융희 2)에 중간되었다. 또한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의 말미에는 ‘光緒十年辛巳閏七月 日三角山三聖菴藏經刻板’이란 기록을 통해 1881년에 삼성암에서 판각된 것으로 여겨진다.⁷⁴⁾

3.2.5 安養庵

<안양암>은 삼각산 소재의 사찰이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⁷⁵⁾ 그러나 『佛說阿彌陀經諺解』와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에 나타난 간행기록을 통하여, <안양암>은 19세기말·20세기초, 삼각산에 소재하였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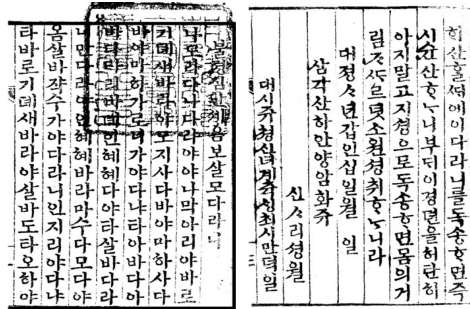
-
- 71) 이 책의 편성 체제는 ‘新園說法圖’를 시작으로 ‘位牌, 序文, 佛頂心陀羅尼經啓請’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본문은 ‘上·中·下’ 3권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으며, 뒤이어 謨庵 知雲이 쓴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각 권의 卷首題는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표지서명은 ‘佛頂心陀羅尼經’이다.
- 72) 卷下의 권말에는 ‘光緒七年辛巳閏七月日三角山三聖菴藏經閣板’의 刊記가 새겨져 있고, 이어 수록된 跋文의 말미에는 ‘隆熙二年戊申冬東庵居士姜在喜印施五百卷’이란 인출기가 확인된다. /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10행 20자’에 변란은 사주단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2.0cm, 가로 15.0cm.이고 어미는 ‘상 하향흑어미’이다.
- 73) 구성 체제를 살펴보면 『高王觀世音經』을 비롯하여 『금강반야바라밀경찬』, 『불설명당신경』,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 74) 형태적 특징으로 10행 19자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자되어 있으며, 변란은 사주단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16.3cm, 가로 11.0cm이다.
- 75) 현재 <안양암>과 관련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그 정확한 창건연대나 연혁에 대해 알 수 없다.

(1) 『佛說阿彌陀經諺解』

『佛說阿彌陀經諺解』는 淨土에 대하여 說한 『불설아미타경』을 언해한 책으로, 1905년(광무 9) 日蓮社에서 간행된 『佛說阿彌陀經』(이하 『阿彌陀經』)에 우리말 번역(언해문)을 더하여 1907년(광무 11)에 삼각산 <安養庵>에서 간행한 것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07년 <日蓮社>에서는 1905년에 간행된 『阿彌陀經』에 姜在喜가 간행한 『阿彌陀經』을 습본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⁷⁶⁾

(2)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그림 13>의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⁷⁷⁾는 1914-1915년경에 최만덕일[女]이 시주(大施主)하여 삼각산 <안양암>에서 간행되었다.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의 말미에 ‘대정스년갑인(甲寅: 1914)⁷⁸⁾십일월 일/ 삼각산하안양암화주/ 신스리성월/ 대시주청신녀계축최시만덕일’이라고 간행사항을 기록하고 있다.⁷⁹⁾



<그림 13>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의 卷首, 卷末

76)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一篋古 294.3355-B872e). 본문의 편성체제는 한문본을 권두에 두었고, 부록으로 언해본을 수록하고 있다. 한문본의 말미에는 이 책 저본의 刊記로 여겨지는 ‘光武九年乙巳三月日蓮社刊板’이라는 기록과 ‘光武十一年丁未二月日三角山安養庵印布化主李性月李善行’이 확인된다.

7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78) ‘甲寅’이라는 干支를 보면 ‘1914년’이 맞고, ‘大正 4년’을 기준하면 1915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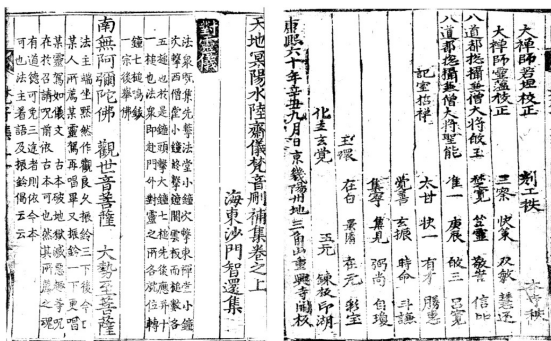
79) 이 책의 형태적인 특징은 ‘10행 20자’에 변란은 사주단변이며, 반곽은 세로 16.6cm, 가로 11.2cm이고, 어미는 ‘상 하향흑어미’이다

3.2.6 重興寺

<중흥사>는 북한산 ‘등안봉’ 아래에 위치하였던 사찰이며,⁸⁰⁾ 그 창건연대는 확인되지 않으나, 고려 말 太古普愚가 重修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僧兵들의 지휘본부인 <八道都摠攝>이 있던 곳이다.

(1)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은 불교의식의 하나인 水陸齋 때 사용되는 여러 儀式文을 모은 것으로 일종의 佛敎儀禮書이다. <그림 14>의 이 책은 1721년에 간행된 것으로,⁸¹⁾ 총 3권(上·中·下)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의 卷首, 卷末

이 책은 본문의 체제가 명확하고,⁸²⁾ 卷末에 ‘八道都摠攝兼僧大將 桂坡 聖能’

80) 현재 북한동 259번지에 위치한다.

8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C古朝21-151).

82) 卷上의 卷首에는 癸卯年에 石室明眼이 쓴 ‘梵音集刪補序’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권수제면의 하단 부분에는 ‘海東沙門智還集’이라 기록하고 있어 지환에 의해 편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권말 부분에는 王室의 長壽를 기원하는 폐기가 새겨져 있다. 권3의 권말에는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간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校正에는 大禪師 若坦과 靈蒞이 전담하고, 刻工으로 佳一, 太甘, 集寧 외 18명이 가담하여 1721년(康熙 60) 9월에 京畿 楊洲地 三角山 <重興寺>에서 開板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쓴 跋文⁸³⁾이 수록되어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2) 『海平尹氏世譜』

『海平尹氏世譜』는 1851년(철종 2)에 尹致定 등에 의해 <중흥사>에서 중간된 것이다.⁸⁴⁾ 이 책의 서문과 발문은 모두 금속활자인 壬辰字로 인출한 것이다. 특히 尹聖瑀의 발문에서, 이 책이 북한산 <중흥사>에서 간행된 판본임을 나타내는 기록이 확인된다.⁸⁵⁾

(3) 『妙法蓮華經』

『妙法蓮華經』(이하 『법화경』)은 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 예로부터 강원외 교재나 독송용으로 읽혀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異譯本 가운데 鳩摩羅什이 번역한 『法華經』 8권이 가장 널리 보급되고 유통되었다.

83) 권말 면지에는 墨書로 ‘大明崇禎紀元後再白鷄歲海東朝國京畿道廣州南漢天柱寺山人宗攝看藏’이란 기록이 있는데, 이는 후대에 이 책을 소장한 소장자가 기록해 둔 것으로 여겨진다. /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은 ‘10행 18자’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자되어 있으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3.0cm, 가로 18.6cm이고, 어미는 ‘상하내향2엽화문어미’이다.

84) 전체 1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책의 편성은 目錄을 시작으로 1676년(肅宗 2)에 쓴 ‘南九萬, 金萬基, 尹堦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1715년에 尹聖瑀가 쓴 跋文이 있다.

85) 그 기록을 살펴보면, 司空公 尹君正의 후손인 ‘尹世綏이 과거에 이루지 못한 편찬사업을 北漢 <重興寺>에서 鑄字와 木活字를 사용하여 3개월에 걸쳐 완성하여 인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편찬이 완료된 시점은 뒤에 수록된 범례의 기록과 尹世綏가 18세기 초에 활동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1715년(乙未)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어 수록된 凡例의 시작부분에는 ‘吾宗舊譜有壬辰亂前刊行一冊而霞谷公/時甲寅木刻本有五冊其後乙未活字印本/又霞谷公皆爲五層圖今此修整略有通變焉’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범례가 작성되기 이전에 과평 윤씨 가문에는 4차례에 걸쳐 족보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차례에 걸쳐 간행된 舊譜는 ‘임진란 이전에 간행한 1책, 甲寅年(1676)에 木刻本으로 간행한 5책, 그 후 乙未年(1715) 활자로 간행한 5책’이 있으며, 이러한 舊譜는 모두 世系表가 5層圖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책의 본문은 목활자로 인출된 것이며, 世系表는 5層圖의 구성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권말에는 尹致定이 1851년 쓴 跋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本譜는 尹兢烈이, 丙申譜의 편자는 尹堦, 乙未譜의 편자는 尹世綏이고, 庚申譜의 편자는 尹蒼東과 尹文東이며, 本譜는 尹致定 자신이 편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은 1851년에 尹致定에 의해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은, ‘10행 20자’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자되어 있으며,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6.8cm, 가로 18.4cm에 어미는 ‘상하내향3엽화문어미’이다.

이 「법화경」은 1470년 貞熹王후의 발원으로 간행된 「법화경」을 저본으로 하여, 1720년 6월에 開板되어 삼각산 <重興寺>로 유진된 판본의 後印本이다.⁸⁶⁾ 본문은 卷首의 변상도를 시작으로 ‘弘傳序, 要解序, 戒環解’를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要解序, 戒環解’는 章을 따로 나누지 않고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⁸⁷⁾

3.2.7 太古寺

현존하는 印本 가운데 그 간행처가 ‘三角山·北漢·北漢成’이라고 기록된 것이 4種이나 있다. 여기에서 ‘北漢’, ‘北漢成’은 판각 당시 북한산성 내에 소재한 <태고사>를 대신하여 기록한 것이다. 현존본 4종의 판목이 <太古寺>에서 소장되어 있었던 기록이 전한다.

(1) 論語集註大全

「論語集註大全」은 논어를 주자학의 관점에서 해설한 주석서들을 한 대 모은 책으로 1803년(癸亥) 5월에 중간되었다. 전체 20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⁸⁸⁾ 이 책의 권말에는 ‘癸亥五月北漢重刊’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북한산 지역에서는 두어 차례 四書의 판목을 중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권말에 기록된 ‘계해’년은 그 중 하나이다.⁸⁹⁾

86) 이는 권말의 ‘康熙年庚子六月開刊 留鎮于三角山重興寺’이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의 권말에는 1470년 당시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겨두었는데, 이 가운데 ‘再聽, 覺善, 泰鑑, 在白’ 등의 각수명도 나타난다.

87)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은 ‘8행 13자’에 변란은 사주단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1.9cm, 가로 15.5cm이다.

88)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181.4論語 대-판-북)되어 있다.

89)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은 ‘10행 22자’에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3.0cm, 가로 18.5cm. 어미는 ‘상하 내향화문어미’이다.

(2) 『詩傳大全』

『詩傳大全』의 초기 저술은 명나라 胡廣이纂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蔡沈이 본문에 주석을 더하고, 朱熹가 詩傳集을 중심으로 여러 학설을 집대성한 일종의 주석서이다. 이 책은 1716년 북한성에서 개판된 것이며,⁹⁰⁾ 책의 권말에 ‘丙申五月日北漢城開刊’이라 기록하고 있어, 1716년 5월 북한성에서 『中庸章句大全』와 함께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¹⁾

(3) 『中庸章句大全』

『中庸章句大全』은 朱熹의 『中庸章句』를 胡廣이 여러 학자들의 설을 모아 보충한 것으로, 본문에는 細注가 표기되어 있다.⁹²⁾ 이 책의 卷末에 기록된 ‘丙申三月日北漢城開刊’이란 간행기록을 통해 1716년 북한성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³⁾ 이후 1802년에 『中庸章句大全』이 중간되었다.⁹⁴⁾ 전체 120장으로 판각되었으며, 권수의 1장이 缺落되었고, 전반적으로 蟲食이 심해 보수되어 있다. 본문의 편성 체제는 ‘中庸章句序, 讀中庸法, 中庸章句大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는 墨書口訣이 있으며 권말에 기록된 ‘壬戌初秋北漢重刊’을 통해 1802년(壬戌)에 중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⁵⁾

90) 현재 <경기대학교 도서관> 및 <전주대학교 도서관>에 전하고 있다.

91)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은 ‘10행 22장’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변란은 사주단면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3.0cm, 가로 18.5cm, 어미는 ‘상하 내향2엽화문어미’이다.

92) 여기서 말하는 『中庸章句』는 명나라 成祖의 명으로 『四書大全』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책이다.

93) <원광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10행 22장’에 소자는 쌍행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변란은 사주단면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6.0cm, 가로 18.5cm, 어미는 ‘상 하향2엽화문어미’이다.

94) 현재 그 인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奎中 685)에 소장되어 있다.

95)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10행 22장’에 변란은 사주쌍면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4.3cm, 가로 18.5cm, 어미는 ‘상 하향화문어미’이다.

(4) 『北漢誌』

『北漢誌』는 八道都摠攝이었던 승려 性能이 瑞胤에게 직책을 인계할 당시에 저술한 것으로, 북한산성에 관한 14조를 地誌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5>의 『북한지』는 1745년(英祖 21)에 목활자로 간행된 것으로,⁹⁶⁾ 모두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권수에는 3장의 北漢圖를 두고 있으며, 본문은 ‘道里, 沿革, 山谿, 城池, 事實, 官員, 將校(附吏卒), 宮殿, 寺刹, 樓觀, 橋梁, 倉廩, 定界, 古蹟’ 등 14條로 구분하였고, 표기 방식에 있어서 각 條별 제목은 黑面に 陰刻하고, 記事는 한 자 낮추어 기록하고 있다.⁹⁷⁾



<그림 15> 『北漢誌』의 北漢圖, 卷首, 跋文

4. 『北漢冊目錄』과 行宮의 서적보관

<그림 16>에서 보는 북한산 行宮은 敵國의 침략에 대비하여, 王室의 옥책과 옥보 및 중요 서적 등을 보관하는 이른바 ‘왕실 서고’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북한산 行宮에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1711년(숙종 37)에 提調 金宇杭이 行宮의

9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C古朝62-14).

97) 이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6행 24자’이며 변란은 사주쌍변에, 반곽의 크기는 세로 22.1cm, 가로 15.2cm, 어미는 ‘상 하형2엽화문어미’이다.

처소로 <上元菴>의 옛터를 제안한 일'이다.⁹⁸⁾ 그리하여 '同年 7월에 행궁을 축조할 장소를 정하였다'⁹⁹⁾고 기록하고 있다. 1711년 8월에 '李緯, 金斗南, 李彥綱 등'에게 관련 관직을 제수하였으며,¹⁰⁰⁾ 1721년 6월에 행궁의 축성에 참여한 관리들에게 상을 내리게 한 바,¹⁰¹⁾ 1721년 6월에 행궁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性能의 「북한지」에 수록된 행궁의 위치¹⁰²⁾

1731년 9월에는 英祖가 행궁에 유숙하여 山祭를 거행하였고,¹⁰³⁾ 1760년 8월에는 임금이 행궁에 舉動하여 毓祥宮에 歷臨하여 酌獻禮를 행하였다.¹⁰⁴⁾ 한편, 1798년 10월에는 행궁을 보호하기 위해 舖舍를 牆內와 성 위에 설치하였고,¹⁰⁵⁾ 1866

98) 『영조실록』, 37년 6월 9일 정묘조.

99) 『숙종실록』, 37년 7월 13일 경자조.

100) 『숙종실록』, 37년 8월 16일 계유조.

101) 『숙종실록』, 38년 6월 9일 신유조.

102) 문화재청(<http://www.cha.go.kr/>).

103) 『영조실록』, 7년 9월 27일 정해조.

104) 『영조실록』, 36년 8월 20일 신묘조.

년 8월과 1868년 4월에 행궁에 대한 봉심을 행하는 등 지속적인 왕실의 관리와 보호를 받았다. 이후 1889년 7월에는 행궁 내 正殿, 北邊의 春舌과 外正殿, 軒間 및 前後退, 밖의 세 칸과 안의 行閣의 세 칸이 무너져 전면적이 행궁의 수리가 행하여 진 바 있다.¹⁰⁶⁾

한편 <그림 17>, <그림 18>과 같은 북한산 행궁의 출판활동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의궤 및 책보, 육보’와 같은 왕실의 중요문서를 보관했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 하면 <표 6>¹⁰⁷⁾과 같다.

당시 행궁의 서고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는 1909년(융희 3) 4월 1일에 북한산 행궁에 소장된 책의 種目과 책수를 기록한 『北漢冊目錄』¹⁰⁸⁾<그림 19>이 있다.

105) 『정조실록』, 22년 10월 19일 기유조.

106) 『승정원일기』, 고종 26년 7월 17일 신유조.

107) 英祖는 ‘1753년에 옛 講書院의 書冊을 置簿한 것을 보니, 『능엄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 손자를 가르치는 도리가 아니니, 北漢 <中興寺>에 보내어 두게 하라’고 하였으며, 이어 1766년에 『御製小學指南』을 여러 신하에게 頒賜하고, 南漢山城과 北漢山城에 나누어 보내어 刊印하라고 명하였다. 『어제소학지남』의 인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古朝41-37)되어 있다. 이어 1790년에는 正祖가 ‘尊經閣의 책이 완질을 갖추지 못해 北漢山城에 있는 經書 2件, 韻冊 5건씩 인쇄하여 內閣으로 하여금 매 卷마다 寶章을 찍어서 존경각에 보관토록 하라’고 하였다. 이 사항은 앞서 『북한지』에도 언급된 적이 있는, <태고사>에 소장 판목인 사서삼경과 삼운통고를 사용하여 인쇄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1874년에는 고종이 『승정원일기』를 베껴서 1부는 북한산성에 분산 배치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소요되는 물자를 갑자기 준비하기는 어려워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1885년 3월에, 宙舍樓에 봉안한 각 殿宮의 冊寶를 동년 8월 觀文閣 봉안한 각 殿宮의 冊寶를 봉안하였다. 한편 1887년 3월에 행궁의 冊寶奉安所에 대한 봄철 봉심 때, 대왕대비전 책보를 옮겨 봉안할 吉日을 논한 바 있는데, 여기서 행궁 내 왕실의 책보를 보관하는 장소로 ‘冊寶奉安所’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당시 왕실의 주요 자료를 행궁으로 봉안할 때에는 吉日을 정하여 준행하였음이 파악된다.

108) 수록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儀軌類는 『上號都監儀軌』를 포함한 61종(323책)을 비롯하여, 文帖類는 『中宮殿玉冊文帖』 외 4종(6책), 式年類는 『大王甲子式年』 외 45종(170책), 表石類는 『德陵表石』 및 『德陵表石』 외 8종(8책), 繪音類는 『六道繪音』 외 13종(52책), 冊文類는 『皇貴妃金冊文』 외 10종(13책), 寶文類는 『冊東宮冊寶文』 외 6종(11책), 寶類는 『皇太子金寶』 외 18종(1책), 印章類는 『重華宮銅印』 외 9종, 『金冊, 銀冊, 玉冊, 竹冊 등』의 冊類는 『皇貴妃金冊』 외 19종(19책) 등, ‘전체 436종 5,242책(개)의 서적 및 인장’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왕실에 관련된 것들이다.

<표 6> 기록으로 본 행궁의 서고 기능

시기	내용	출처	비고
18C	1753 講書院의 「楞嚴經」을 북한산성의 重興寺로 보내 보관 함	「국조보감」	
	1766 고서관에 명하여 「御製小學指南」을 인쇄하여 북한산성에 보냄	「국조보감」 「왕조실록」	국중
19C	1888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의 옥책과 옥보를 北漢山의 行宮에 봉안하도록 명함	「승정원일기」	
	1888 북한산 행궁에 봉안된 「璿源譜略」을 수정한 다음 봉안함	「승정원일기」	
	1892 북한산성의 행궁에 봉안된 각 전궁의 冊寶를 管城所에 임시 봉안함	「승정원일기」	
	1893 金世基가 北漢管城所에 나아가 임시로 봉안해 두었던 각 殿宮의 冊寶를 도로 行宮에 봉안함	「승정원일기」	
	1895 대행 왕후의 평상시의 敎命과 冊寶를 빈전에 봉안하기 위해 북한 北漢行宮에 보관된 것들을 규장원으로 하여금 받들고 오게 함	「승정원일기」	
	1897 北漢行宮에 봉안된 대행 왕후의 병인년 이후 敎命과 冊寶를 殞殿에 진열하기 위해 받들고 오	「승정원일기」	
	1889 '행궁 後苑에 별도로 봉안소를 한 채 세워 봉안에 편리하게 하라'고 명함	「승정원일기」	
	1890 畿營이 거행 아래 북한행궁에 봉안한 책보를 받들어 오게 함	「승정원일기」	
	1892 「璿源譜略」을 改張한 뒤에 도로 봉안함 대전, 왕대비전, 중궁전의 冊寶를 北漢行宮에 봉안함	「승정원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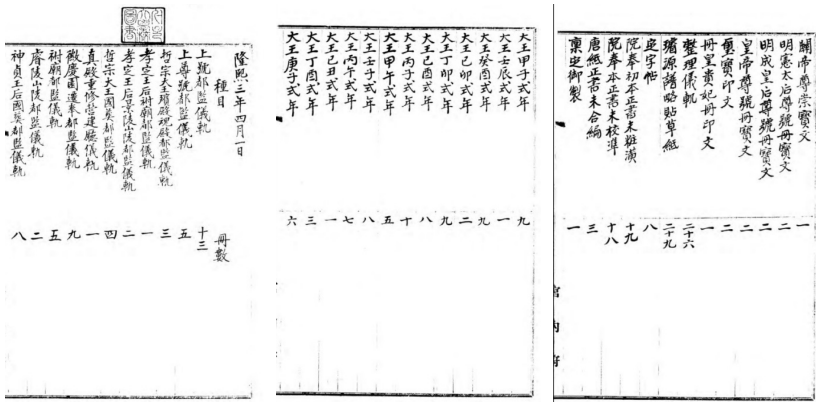


<그림 17> 「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행궁



<그림 18> 현재의 북한산 행궁 터

위 목록의 기록들을 통하여, 북한산 행궁은 왕의 別宮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왕실의 중요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처로서, 또한 왕실의 제사를 모시는 중요한 장소로 重視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 「北漢冊目錄」¹⁰⁹⁾

5. 결론

이상의 본문에서는 18세기 이후 북한산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 특히 寺刹에서 간행된 佛書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산 지역의 전체 판본은 모두 25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금속활자본은 4종, 목활자본은 2종, 목판본은 19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금속활자본 4종은 모두 畵史字로 인출된 것이며, 모두 佛典類에 해당하였다.

둘째, 간행 시기별 사항을 살펴보면, 18세기 5종(20%), 19세기 15종(60%), 20세기 5종(20%)으로, 19세기 간행본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세기에는 1882년과 1883년 사이에 무려 8종이 집중 간행되었고, 1851년과 1853년 사이에는 4종이 판각됨으로써, 19세기 당시 북한산 지역의 사찰에서는 1851년 및 1882년경의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開板 佛事가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109)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셋째, 간행 주제별로 분석하여 본 결과, ① 佛典類가 전체 간행 자료의 15종을 차지함으로써 60%를 점유하고 있다. 불전류의 구성은 經典部가 13종을 차지하고 있고, 禮懺部가 3종, 文集部와 宗義部가 각각 1종으로 나타나며, 기타 1종으로 확인된다. ② 그밖에 史書類가 4종, 族譜類 및 地理類가 각각 1종으로 나타났다. ③ 불전류의 간행에서 주목되는 점은, 각 佛典에 수록된 序·跋이나 發願文 등에서 그 간행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전은 왕실이나 왕실 외척(外戚: 外家)의 후원을 받아, 국왕을 비롯한 왕실 가족의 長壽와 死後 極樂世界의 왕생을 위한 기원을 담은 간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④ 개인이 시주하여 간행하는 불전의 경우에도 그 부모의 장수와 安養世界의 왕생을 기원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⑤ 게다가 1872년에 북한산 <감로암>에서 결성된 '妙蓮結社'에서 간행된 一連의 불서들은 결사의 실천과 관련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특히 주목되었다.

넷째, 18세기 이전에 북한산 지역에서의 서적 출판과 관련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관계로 그 전반적인 간행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哀惜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산 지역에서 현재의 기록상으로 파악이 가능한 18세기 초부터 서적의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볼 때, 18세기 이전에도 서적의 출판활동이 활발하였을 것으로 보여 진다.¹¹⁰⁾

다섯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18세기 이후 북한산 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서적 및 판본들은 일단 간행된 이후 해당 사찰의 승려들과 신도에 의하여 여타 지역의 다른 사찰이나 소장처로 分給되었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에 간행되었던 전체 판본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印本들이 현재까지 傳存하고 있음에,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 왕성하였던 북한산 지역의 서적 출판활동에 대하여는 그 大綱을 파악할 수 있었다.

110) 그 정확한 이유를 현재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난점이 있기는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세의 대규모 침략, 혹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찰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된 서적까지 소실(燒失: 消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戰亂을 겪은 뒤에는, 해당 사찰에서 수 세기 동안 보존하여 온 經板과 印本들이 戰禍로 消失(燒失)되는 경우가 허다하였기 때문이다.

여섯째, 18세기 간행본인 『海平尹氏世譜』의 경우, 인쇄된 序文과 跋文은 五鑄甲寅字인 壬辰字로 인출하였으나, 본문은 목활자로 간행된 특징에 주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태고사>에서는 무려 5,700版的 책판을 판각하였다는 기록과 1800년대 초에 보관된 판목을 重修한 사례가 확인된 점도 주목할 수 있었다.

일곱째, 북한산에는 行宮을 두어, 왕이 임시로 머무르던 別宮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책과 옥보, 왕실의 중요 서적을 보존하는 일종의 서고’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음을 주목하였다. 당시 행궁의 서고 규모는 『北漢冊目錄』에 나타난 소장 種目과 冊數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책이 필사된 1909년을 기준으로 당시 행궁에 보관된 印章 및 서적이 무려 436종이며, 그 수는 5,242개에 달하였다.

이상에서 고찰된 연구를 토대로 하여 향후 추가적인 印本들을 더 발굴함과 동시에 관련 기록이 보완됨으로써 북한산 지역의 출판문화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우리나라 각 지역별·시대별 서적 간행에 관한 연구 또한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原典

『國朝寶鑑』. / 『高麗史』. / 『東國輿地勝覽』. / 『北漢山誌抄略』. / 『北漢誌』. / 『北漢冊目錄』.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朝鮮王朝實錄』.

2. 報告書

고양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고양: 고양시, 1999.

고양문화원. 『고양의 일과 역사』. 고양: 고양문화원, 2003.

고양문화원. 『문헌소개 고양관련 사료집』 1·2. 고양: 고양문화원, 2007.

고양시·고려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고양시』. 고양: 고양시, 2006.

今西龍. 「京畿道高陽郡北漢山遺蹟調查報告書」大正5年度古蹟調査. 京城: 朝鮮總督府, 1917.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 「북한산의 불교유적」. 서울: 대한불교 조계종, 1999.

문화재청,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사지(폐사지)현황조사보고서」上 - 서울, 인천, 경기북부.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3. 單行本

경기문화재단. 「북한산 조사 연구 자료집」. 수원: 경기문화재단, 2011.

경기도. 「경기도의 옛지도」. 용인: 경기도,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불교민속문화해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김영상. 「북한산」.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4.

김운우. 「북한산의 역사지리」. 서울: 범우사, 1995.

나각순. 「서울의 성곽」.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민경길. 「북한산」1·2·3. 서울: 집문당, 2004.

박인식, 안승일. 「북한산」. 서울: 대원사, 2003.

박창규. 「북한산 가는 길」. 서울: 진선, 2010.

북한산 노적사. 「북한산 노적사」. 고양: 북한산 노적사, 2003.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4」.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200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해동지도」. 서울: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5.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국역 북한지」. 서울: 서울특별시, 1994.

宋志英. 「그山河 그人傑」. 서울: 培英社, 1979.

신정일. 「신정일의 신 택리지(경기도)」. 서울: 타임북스, 2011.

이병두. 「북한산성과 팔도사찰」.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2010.

李燦. 「韓國의 古地圖」. 서울: 범우사, 1991.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조면구. 「북한산성」. 서울: 대원사, 1994.

조운민. 「城과 왕국」. 서울: 주류성출판사, 2013.

청계천문화관. 『북한산과 북한산성』. 서울: 청계천문화관, 2010.

황원갑. 『고승과 명찰』. 서울: 책이 있는 마을, 2000.

4. 論文

김갑주. “南北漢山城 義僧番錢의 綜合的 考察.” 『불교학보』 제25집(1988).

나종면. “북한산.” 『숲과 문화』 제13호(2004). 59-62.

백혜경. “양주지역 불서 간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2006.

백송오. “조선 후기 북한산성의 축성과 운영체계.” 『한국사학보』 제15집(2013). 113-140.

박언곤. “북한산성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建築』 제40호(1996). 25-27.

안현주. “조선시대 『사서』의 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07.

李宇泰. “北漢產碑의 新考察.” 『서울학연구』 제12집(1999). 1-24.

이현수. “18세기 북한산성의 축조와 경리청의 치폐.” 『청계사학』 제31집(1986). 231-248.

임성준. “北漢山城 內 建築物의 配置 및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2001.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의 활동.” 『역사민속학』 제42집(2013). 37-70.

한병일. “北漢山 新羅 眞興王巡狩碑 복제에 대한 研究.” 『한국문화사학회』 제26집(2006). 5-22.

